

정책연구 2001-3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

2001. 11

제주발전연구원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 제주도 전역에는 2차대전시의 태평양전쟁과 관련하여 구축된 진지동굴, 참호, 비행장 등의 일본군 전적지가 산재해 있어 역사 및 평화교육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지금까지 방치된 일본군 전적지를 정비·개발하여 프로그램화함으로써 현대사 및 평화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서도 가치를 지니게 된다.
- 특히 2차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인들이 역사적 회고와 함께 전적지 순례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어 일본인관광객 대상 주요 관광상품이 된다.
- 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과거 역사를 통한 교훈을 얻고 미래의 비전을 생각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적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 방안 마련은 한·일간 만남을 통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향후 21세기의 동반자적 입장을 공고히 하는 터전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를 역사교육장 및 문화·관광상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주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외국 선진관광지의 전적지 활용 사례에 대한 정확한 벤치마킹과 도내 관광상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전적지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주변 관광자원 및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제주지역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기한다.
- 주요 전적지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함에 있어 상품성, 접근성, 연계성 등을 평가해 보고, 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 이론적 논리 구축을 위한 문헌·사례연구
- 여건분석을 위한 현장 및 주변 관광환경 조사
- 시사점 및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해외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4.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제주지역의 일본군 전적지 가운데 1차 조사를 통하여 상품화 가능성 및 교통편의성, 주변 관광자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제주시 지역 : 어승생악, 사라봉·별도봉, 용연 일대
- 서귀포시 지역 : 삼매봉 해안 일대
- 북제주군 지역 : 비양도 앞바다, 고산리 수월봉 해안 일대
- 남제주군 지역 : 모슬포와 송악산 일대, 성산 일출봉 해안 일대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일본군 전적지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한 진지동굴, 참호, 포대, 비행장 시설 등의 군사적 시설물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 본 연구의 내용 범위 틀은 여건분석 → 사례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 전문가 의견조사 → 자료분석과 시사점 도출 → 역사교육장화 방안 수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 제1장은 연구의 개요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범위를 기술하였다.
- 제2장은 여건분석 부분으로 역사교육장화 가능성과 한계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적지의 역사적 배경 및 현황, 주변 관광자원 및 관광시장동향 등의 관광환경을 분석하였다.
- 제3장은 해외사례분석 부분으로 제주도와 관광환경이 유사하면서도 일본군 전적지를 관광상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이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 제4장은 전문가 의견조사 부분으로 제주지역 관광사업체의 관광상품개발 담당자와 관광객과 수시로 접촉하는 실무자 등의 의견을 조사하여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의 시사점과 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 제5장은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 방안을 수립하는 장이다. 앞서의 여건분석,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여건 분석

1. 역사적 배경 및 현황

1) 역사적 배경

- 일본제국주의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침략을 시작하였고, 그 준비작업으로 1935년에 모슬포에 일본해군 비행장을 건설하고 중국본토 폭격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 1943년부터는 일본의 전세가 불리해지고, 미국의 반격태세 강화로 일본은 본토방위에 위협을 받게 되자 제주도를 본토방위의 거점으로 지목하고 도민을 징발하여 제주비행장을 시작으로 삼양과 서귀비행장의 건설도 착수하였다.
- 1944년 11월 미군이 B29 폭격기를 이용하여 일본 본토를 공습한 이래 일본은 1945년 2월부터 제주시, 고산, 서귀포, 성산포 등에 특공기지를 구축하여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는 군사시설을 건설하였다.
- 1944년말에는 일본 해군이 전멸되고, 1945년 3월에는 유황도(硫黃島)와 오키나와가 미군에 점령당하자 4월에 관동군 제110사단과 121사단을 제주도로 이동시키고, 일본내 108사단과 120사단 등을 포함시켜 제58군단을 새로이 편성하여 제주도 전역의 요새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 1945년 5월에는 일본의 수송선 2척과 호위함 4척이 비양도 앞바다에 정박하던 중 미잠수함의 공격으로 격침되었고, 8월에는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일제의 수탈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 당시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은 총 75,481명으로 당시 제주도 인구 265,420명의 약 29%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였으나, 그중 한국인 군인 및 군속 17,161명을 제외한 일본군 58,320명은 194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LST함 5척으로 10회에 걸쳐 일본 큐슈 사세보항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제주에서 일본군이 완전히 물러가게 되었다.

2) 입지 및 현황

- ※ 태평양전쟁과 관련한 일본군 전적지는 제주 전역에 산재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개요에서 밝혔듯이 1차 조사를 통하여 역사교육장 및 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5개 지역을 중점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송악산 아래 산이수동 해안에는 넓이 3~4미터, 길이 20여미터의 해안동굴이 15개나 뚫어져 있는데, 해안을 통해 상륙하는 미군을 방어하고, 일본군 특공대원들이 어뢰를 싣고 적함을 향해 자폭하는 어뢰정(소위 다이아다리선)을 숨겨두기 위한 해안기지로 활용되었다.
 - 동굴들 중 일부는 해안벽이 무너지면서 막혀 있으나 대부분은 뚜렷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원형대로 보존되었고, 특히 해안동굴과 알드르비행장(일명 오무라비행장)을 왕복할 수 있는 5백미터 정도의 동굴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 안덕면 사계리의 속칭 까마귀오름이라 불리는 작은 산 정상과 인근 단산에도 천연동굴처럼 보이는 동굴들이 10여개가 있는데, 실체는 일본군이 파 놓은 진지동굴이다.

-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알드르 비행장’은 당시 중국 본토인 상해를 폭격할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곳으로 일제는 대정주민들의 생존터였던 알드르 평야를 몰수하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전체 면적 80만평의 비행장을 건설하였다.
- 일본군은 1926년부터 모슬포 알드르에 20만평의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10여년에 걸쳐 활주로 등을 개설한 뒤 1937년부터는 80만평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실시하여 이곳에 사세보 해군항공대 2500명과 전투기 27기를 배치하였다.
- 알드르 비행장의 부속시설로는 관제탑과 격납고 20개소, 비행기정비고 2개소,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공호, 탄약고, 대공포진지, 일조점호장 등의 시설물이 남아 있다.
- 성산일출봉 해안에는 모두 80여개의 굴이 뚫어져 있어 제주지역에 남아 있는 진지동굴 수로는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섭지코지 지역에는 포진지를 설치했던 흔적이 약하게나마 남아 있다.
- 서귀포 삼매봉 해안 일대에는 송악산 해안동굴과 마찬가지로 해안을 통해 상륙하는 미군을 방어하고, 무기 등을 숨겨두기 위한 동굴이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고, 소형상륙정의 상륙시설로 보이는 시멘트 구조물도 남아 있다.
- 한림항과 비양도 지역은 정박해 있던 일본군 수송선(해방함) 2척과 호위함 4척이 미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되었던 곳이다. 당시 배에는 800여명의 특공대와 많은 군수품을 싣고 있었는데, 1970년 10월 6일에는 협재리에서 이때 당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군 무덤 200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 인근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 포구에는 일본군이 수송선 및 호위함들의 안전을 위해 건설한 고산등대와 이 지역 주둔 일본군의 대대본부로 쓰인 건물의 일부가 남아 있다.
- 제주시 사라봉 및 별도봉 해안에도 해안을 통해 상륙하는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진지동굴 7개 정도가 남아 있다. 또한 함덕해수욕장 인근의 속칭 큰사시미일대에도 여러 개의 일본군 진지동굴이 있는데, 이곳에는 일본군 장군이 은거하던 장군동굴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2. 관광환경 분석

1) 주변 관광자원 현황

(1) 모슬포 · 송악산 일대

□ 관광지구 개발 현황

지 구 명	면적(km ²)	개발방향	개발주체
송악산 관광지구	1.629	역사유적 · 해상관광지	남제주리조트개발(주)
용머리 관광지구	0.550	경관과 조화된 체류형 관광지	관 · 민 합동개발

- 산이수동 해안의 진지동굴이 있는 송악산에는 역사유적 · 해상관광지로서 송악산 관광지구가 조성 준비중으로 향후 관광지구가 완성되면 해안동굴은 주요한 관광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 산방산 밑 용머리해안은 해안의 언덕 모양이 마치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과 닮아 붙여진 명칭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어 연계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관광자원 현황

구 분	계	현 황
유료 관광지	2개소	산방산, 제주조각공원
해수욕장	2개소	하모해수욕장, 화순해수욕장
역사·유적지	3개소	추사적거지, 백조일손지묘, 하멜기념비
문 화 재	4개소	대정향교(제주도유형문화재 제4호) 대정성지(제주도기념물 제12호) 산방연대(제주도기념물 제23-21호) 서림연대(제주도기념물 제23-22호)

- 유료관광지로는 천연기념물 제376호로 지정되어 있는 암벽식물지대 및 산방굴사가 자리잡은 '산방산'과 안덕면 덕수리 13만평 규모의 면적에 160여종의 조각품들을 전시한 공원형 관광지 '제주조각공원'이 있다.
- 해수욕장으로는 백사장 면적이 26,000㎡로 1999년 4천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한 '하모해수욕장'과, 백사장 면적이 20,000㎡로 비교적 작은 편이나 남제주군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는 곳으로 1999년 2만 3천 7백여명이 이용한 '화순해수욕장'이 있다.
- 역사유적지로는 추사 김정희가 유배기간 9년 동안 남긴 업적을 기리고 추사 작품들을 전시한 문화·예술공간인 '추사적거지', '이재수의 난'으로 불리는 1901년 신축년농민항쟁을 이끈 세 명의 의사들을 기리는 비석인 '삼의사비', 4·3항쟁의 비극의 현장인 '백조일손지묘', 네덜란드 선원 하멜이 표류하다 상륙한 후 우리나라를 유럽에 최초로 알린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하멜기념비'가 있다.
- 문화재로는 과거 제주에 세워졌던 세 군데 향교의 하나인 '대정향교', 1417년(태종 17년)에 축성한 읍성의 터인 '대정성지'와 '서림연대', '산방연대' 등이 있다.

(2) 서귀포 삼매봉 일대

□ 관광단지 개발 현황

지 구 명	면적(km ²)	개발방향	개발주체
중문 관광단지	3.562	휴양관광지	한국관광공사

- 중문 관광단지는 제주의 대표적인 휴양형 관광지로서 다수의 특급호텔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골프장, 여미지식물원, 천제연폭포 등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곳으로서 송악산 일대와 서귀포 지역을 연결하는 체류 거점으로서의 활용도가 크다.

□ 관광자원 현황

구 분	계	현 황
유료 관광지	7개소	천제연, 천지연, 정방폭포, 퍼시픽랜드 여미지, 베릿네어촌, 대유수렵장
해수욕장	1개소	중문해수욕장
문 화 재	다수	삼도 파초일엽자생지(천연기념물 제18호) 무태장어서식지(천연기념물 제27호) 담팔수나무자생지(천연기념물 제163호) 서귀포층의 패류화석(천연기념물 제195호) 천지연난대립지대(천연기념물 제379호) 등 다수

- 유료관광지로는 폭포로서 ‘천제연’, ‘천지연’, ‘정방폭포’와 레저형 관광지인 ‘퍼시픽랜드’, ‘대유수렵장’, 체험관광이 가능한 ‘베릿네어촌’ 등이 있다.
- 해수욕장으로는 백사장 면적이 107,400m²인 ‘중문해수욕장’이 있어 인근 호텔의 숙박객은 물론 관광객들의 많이 찾고 있고, 최근에는

영화의 촬영장소로서 인지도가 더욱 높아져 2000년에는 12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다.

- 문화재로는 삼도 파초일엽자생지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5개소와 기념물인 문섬의 상록활엽수림, 범섬의 상록활엽수림 및 흑비둘기 서식지 등 많은 문화재와 기념물이 있다.

(3) 성산일출봉 일대

□ 관광단지 개발 현황

지 구 명	면적(km ²)	개발방향	개발주체
성산포 해양 관광단지	4.177	국제규모의 해양관광단지	미정

-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국가적으로 국제적 규모의 해양관광단지로서 개발할 예정지로서 향후 관광단지가 완성되면 일출봉 해안의 진지동굴은 주요한 관광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 관광자원 현황

구 분	계	현 황
유료 관광지	3개소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해수욕장	3개소	신양, 함덕, 김녕해수욕장
문 화 재	6개소	성산일출봉(천연기념물 제420호) 혼인지(제주도기념물 제17호) 말등포연대(제주도기념물 제23-1호) 협자연대(제주도기념물 제23-2호) 천미연대(제주도기념물 제23-3호) 오소포연대(제주도기념물 제23-23호)
기 타	1개소	섬지코지 등

- 유료관광지로는 천연기념물로 선정될 정도로 제주를 대표하는 비경의 하나인 '성산일출봉'과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인 '만장굴', 단순림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비자림' 등이 있다.
- 해수욕장으로는 최근 영화촬영장소로 소개되어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신양해수욕장'을 비롯하여 물결이 잔잔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함덕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등이 있다.
- 문화재로는 '성산일출봉', 제주의 시조인 고·양·부 삼신인이 혼인을 올린 전설이 깃든 '혼인지'를 비롯하여 과거 제주를 침입하는 외적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연대들이 있다.

(4) 한림 및 비양도 일대

□ 관광자원 현황

구 분	계	현 황
유료 관광지	3개소	한림공원, 분재예술원, 항몽유적지
해수욕장	2개소	곽지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문 화 재	다수	항몽유적지(사적 제396호) 절부암(제주도기념물 제9호) 비양나무자생지(제주도기념물 제48호) 등
기 타		금능석물원, 차귀도 배냇시

- 유료관광지로는 아열대식물원과 협재-쌍용굴, 민속촌 등 복합기능의 관광지인 '한림공원'과 중국 국가원수가 찾아 감탄을 할 정도라는 '분재예술원', 고려시대의 제주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항몽유적지' 등이 근거리에 있다.
- 해수욕장으로는 '곽지해수욕장'과 한림공원 바로 앞에 낮은 수심과 쪽빛 바다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겨 찾는 '협재해수욕장'이 있다.

- 문화재로는 ‘항몽유적지’, ‘절부암’, ‘비양도의 비양나무자생지’ 등이 있고, 기타 갖가지 하루방과 화강암조각들을 볼 수 있는 ‘금능석물원’과 ‘차귀도 배냇시’는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5) 제주시 사라봉 일대

□ 관광자원 현황

구 분	계	현 황
유료 관광지	3개소	목석원,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해수욕장	1개소	이호해수욕장
문 화 재	다수	관덕정(보물 제322호) 제주시곰솔(천연기념물 제160호) 제주목관아지(사적 제380호) 제주향교(유형문화재 제2호) 등
기 타	다수	용두암, 사라봉공원, 도깨비도로 등

- 유료관광지로는 천오백여가지의 갖가지 형상의 돌과 나무가 전시되어 있는 ‘목석원’과 제주의 탄생신화를 간직하고 있는 ‘삼성혈’, 제주의 민속과 역사를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이 있다.
- 해수욕장으로는 백사장 면적이 42,000m²로 2000년 4만 5천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한 ‘이호해수욕장’이 주변의 해안도로의 절경과 어우러져 좋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문화재는 보물 제322호인 ‘관덕정’과 사적 제380호인 ‘제주목관아지’ 등 다수의 기념물과 유·무형문화재가 있으며, 기타 관광자원으로는 ‘용두암’과 ‘도깨비도로’, ‘사라봉공원’ 등이 제주관광의 주요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2) 주요 관광시장 동향 및 전망

주요 외국인관광객 내도 현황

(단위 : 명, %)

구분	'97	'98	'99	'00
전체 외국인관광객 수	184,403	223,701	246,965	288,425
일본인관광객 수 (전체 외국인 대비 구성비)	121,446 (65.8)	117,948 (52.7)	125,128 (51.1)	147,358 (51.0)
중국인관광객 수 (전체 외국인 대비 구성비)	5,075 (2.8)	15,142 (6.9)	46,247 (18.7)	57,236 (19.9)

- 일본인관광객은 1993년에 19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7년 이후 일본경기의 침체 등으로 하향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 들어 다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 일본시장은 다소 침체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제주도 외국인관광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으로 일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 개발 등의 다각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 중국인관광객은 1994년 1,117명으로 공식집계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2.8%를 차지하는 미미한 시장이었으나,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00년에는 대만과 홍콩을 제외한 순수 중국인관광객만 5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관광객의 20%에 이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상승세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는데, 한국과 중국은 일본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지상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관광객 성향별 내도 현황

(단위 : 명, %)

구분	'97	'98	'99	'00
전체 내국인관광객 수	4,363,192	3,291,116	3,666,836	4,110,934
일반단체 (전체 대비 구성비)	807,313 (18.5)	493,254 (15.0)	584,116 (15.9)	627,033 (15.2)
수학여행 (전체 대비 구성비)	507,248 (11.6)	128,533 (4.0)	211,259 (5.8)	311,795 (7.6)
가족관광 (전체 대비 구성비)	1,975,088 (45.3)	1,544,197 (47.0)	1,678,677 (45.8)	2,061,136 (50.1)
신혼여행 (전체 대비 구성비)	355,944 (8.2)	424,038 (12.9)	316,506 (8.6)	240,272 (5.8)
개별여행 (전체 대비 구성비)	533,196 (12.2)	477,393 (14.5)	629,313 (17.2)	582,273 (14.2)

- 일반단체 관광객은 현상유지 양상을 보이며 제주도를 찾는 전체 내국인관광객의 15~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수학여행은 1997년 이후 국내경제의 침체로 1998년부터는 급속한 감소를 보이다가, 2000년부터는 다시 회복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가족관광객 역시 1997년 이후 잠시 주춤하였으나 2000년에는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내국인관광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 신혼여행은 199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결과 전체 시장의 6% 미만을 차지하는 소규모 시장으로 전락하여 신혼여행지로서의 제주도의 관광전략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개별여행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Ⅲ. 해외사례 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제주도의 경쟁관광지이면서 유사한 관광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판의 일본군 전적지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 조사대상지역 : 사이판 전역
- 조사기간 : 2001년 10월 1일~10월 3일(3일간)
- 조사방법 : 현장답사 및 관광사업자 및 관광객과의 1대1 개별면접

2. 사이판의 현황

- 북마리아나제도는 한국에서 동남쪽으로 4시간,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한시간 20분여 거리에 있는 서태평양 한복판에 사이판, 티니안, 로타 등 3개의 큰섬외에 모두 14개의 유·무인도로 이뤄져 있다.(이에 반해 남쪽의 '괌'은 남마리아나제도라는 호칭 대신 '괌'으로 호칭)
- 북마리아나제도를 이루는 3개의 큰섬 가운데 국제공항이 있는 사이판은 남북으로 약 21km, 동서로는 8.8km(제주도의 약 9~10/1)밖에

- 되지 않는 좁고 긴섬으로 산호초가 바다위로 솟아올라 만들어졌다.
- 사이판의 기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쾌적하게 맑은 날의 하루 평균 온도는 섭씨 27도, 연중 기온차가 1-2도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습도는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불쾌 지수가 높지 않은 것은 연중 무역풍이 불기 때문이다. 계절을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대략 7월과 9월 사이인 우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잠깐씩 뿌러지는 열대성 폭우인 '스콜'이 자주 발생한다.
 - 전체 인구는 2000년도 추정 수치가 7만 8천여명으로 토착민인 차모로인과 카롤리니안들이 가장 많고, 필리핀인, 한국인, 태국인, 중국인, 일본인과 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보다 1시간 빠른 시차를 보이고 공식어는 영어와 차모로어, 카롤리니안어이며 종교는 대부분이 카톨릭을 믿는다.
 - 화산폭발로 이뤄진 북마리아나제도의 역사는 크게 선사시대, 스페인 통치시대(1521~1899), 독일 통치시대(1899~1914), 일본 통치시대(1914~1944), 미국 자치 연방시대(1945~현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대륙의 외지인으로서 1521년에 스페인의 탐험가 마젤란이 처음 발을 디뎠고, 마리아나라는 명칭은 스페인 국왕 필립 4세의 미망인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 여왕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 이후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 괌과 필리핀을 점령하게 되고, 1899년 독일은 스페인으로부터 사이판을 사들이게 된다.
 - 1914년 독일로부터 사이판을 비롯한 일부 섬들을 빼앗은 일본은 이 지역에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한편 군사적 요충지로 개발하게 되고, 사이판을 비롯한 북마리아나제도는 태평양전쟁의 중심에 있게 된다.

- 이후 2차 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미국의 신탁통치령이 되었고, 현재는 미국 자치령(외교, 국방권은 미국 관할)으로 상·하의원을 선출하며 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국제투자지역으로 외국인의 투자와 소유가 인정되어 최근에는 한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 괌과 마찬가지로 사이판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광수입이다. 연간 사이판을 방문하는 여행자의 수는 60만명 정도이며 그중 70% 이상을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사이판의 관광수입과 경제는 일본이나 한국 등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전적지 관련 관광지

미국 기념 공원(American Memorial Park)

- 비치 로드에서 마이크로 비치로 통하는 도로의 북측 일대에 넓게 조성된 공원으로 1994년에 태평양전쟁 종전 50주년을 기념해서 8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과 전몰장병위령탑 등이 완성되었다.
- 공원 내에는 아늑한 숲과 벤치가 있어 사이판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가 되고 있고, 공원 바로 앞에는 마이크로 비치가 펼쳐져 있어 윈드 서핑과 수영 등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들을 볼 수 있다.

□ 태평양 한국인 위령 평화탑

- 사이판에서 전쟁을 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었지만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던 한국인은 1914년부터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처음에는 사탕수수 경작을 하였지만 1930년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으로 병커, 항만, 비행장 등의 군사시설 공사에 투입이 되었다.
- 태평양전쟁으로 사이판을 비롯한 남태평양 일대에 징발된 한국인이 대략 1백 50만명에 이르고, 사이판에서 이유없는 죽음을 강요당한 한국인 희생자의 수는 약 3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징용된 한국인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탑이 사이판 북부 마르피산 부근에 세워진 "태평양 한국인 위령 평화탑"이다. 해외희생동포위령사업회가 1974년 3월 25일 기공하여 1979년 완공하였다.
- 위령탑은 5각과 6미터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5천년의 역사와 6천만 민족을 상징하는 의미이다.

□ 일본군 최후의 사령부(Last Command Post)

- 태평양 한국인 위령 평화탑 바로 옆에 '일본군 최후의 사령부'가 있는데, 태평양전쟁 당시 전세가 미국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되자 마지막으로 이곳 마르피 산밑의 천연동굴에까지 피신을 와서 요새를 만들어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되었다.
- 일본의 사이토 육군 중장은 부하들에게 천황폐하를 위해 한명당 7명의 미국 군인을 사살하라고 명령하고 본인은 할복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곳 요새에는 그때의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반자이클리프(Banzai Cliff · 만세절벽)

- 반자이클리프는 마르피 로드의 일본인 최후의 사령부 맞은편에 있는 길을 따라 들어서면 사이판에서 최고의 바다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은 1944년 태평양전쟁의 패전의 기미가 역력하자 미국 군인에게 항복을 하는 쪽보다는 죽음을 선택했던 장소이다.
- 이때 바다로 몸을 던지며 "반자이(Banzai · 만세)"를 불렀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반자이클리프(만세절벽)이라고 불리워지고 있고, 절벽 주변에는 추모비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당시 목숨을 내던진 일본인은 민간인을 포함해서 수천여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Lonely Planet 284페이지 중에는 "전체 가족이 나이 순으로 줄을 선다. 가장 어린 아이는 그 형이나 누나에 의해 절벽에서 밀려 떨어진다. 어머니는 아이를 밀고 그 어머니는 남편에 의해 밀려 떨어진다. 그리고 그 남편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던진다. 미국은 전단을 뿌리고 항복해도 해가없다는 방송을 하지만 미군의 포로가 되면 고문당하다 살해당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일본인 스스로의 대량학살은 계속된다." 고 표현하고 있다.

□ 자살절벽(Suicide Cliff)

- 반자이클리프(만세절벽)에서 산쪽으로는 또다른 절벽을 볼 수 있는데, 해발 250미터 마르피산 서쪽의 자살절벽이라 불리는 곳으로 최후에 몰린 수많은 일본군이 항복 대신 자살을 택하고 이곳에서 뛰어

내렸다. 절벽의 정상쪽에는 현재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구 일본 병원 유적(Old Japanese Hospital)

- 일본 통치시대에 세워진 병원 유적인 이곳은 당시 사이판은 물론 마이크로네시아 전체에서도 최대의 의료시설을 자랑하고 있던 곳으로 이곳에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 콘크리트와 대리석으로 지은 하얀색 건물은 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고, 원형 상의 대합실, 타일이 깔린 수술실, 약제실, 빗물을 저장하던 탱크, 건물앞 빈터에는 방공호가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 구 일본 형무소 유적(Old Japanese Jail)

- 구 일본 병원 유적에서 남쪽 방향으로 걸어서 5분거리에 있는 이 형무소는 일본 통치시대의 관할 형무소로서 콘크리트 벽과 빨갭게 녹슨 철재문이 당시 형무소의 모습을 말해준다.
- 4평 정도의 방 6개, 8평 정도의 방 10개, 그리고 4개의 독방이 남아 있고, 벽 곳곳에는 당시 수형되어 있던 죄수들의 것으로 보이는 낙서가 그대로 있다.

4. 성공요인 분석

□ 적극적인 원형 보존으로 생동감 연출

- 사이판의 일본군 전적지는 당시의 대포, 탱크, 폭격맞은 요새, 수형인들의 낙서가 있는 형무소, 병원 등은 물론 심지어 해수욕장 한복

판의 넓은 탱크도 그대로 보존되어 60여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반면 제주도는 대공포 기지에는 그 터만 남고 포는 없는 등 진지동굴 및 비행기 격납고 외에는 당시의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없으며, 그나마 기존의 전적지는 해녀들의 탈의실과 주민들의 농작물 저장고 등으로 이용되는 등 원형훼손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

□ 공원화를 통해 상품성 및 접근성을 향상

- ‘반자이클리프(만세절벽)’, ‘자살절벽’, ‘일본군 최후의 사령부’ 등 사 이판의 일본군 전적지는 대부분이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최소한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상품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공원으로의 조성이 안된 것은 물론이고, 송악산 진지동굴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접근로조차 마련되지 않아 외국인관광객은 물론 제주지역민의 경우에도 전문안내인이 없이는 찾아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야기화(story-telling concept)를 통한 흥미의 유발

- 성공하는 관광상품의 중요한 요소가 이야기거리의 제공이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즉, 반자이클리프(만세절벽)이나 최후의 사령부 등 드라마적 요소가 가미된 이야기거리를 부각시켜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였다.
- 그 예로 반자이클리프(만세절벽)는 영화 ‘빠삐용’의 절벽에서 뛰어 내리는 마지막 장면이 촬영된 장소(실제는 호주)라고 관광객들이 오

인하고 있을 정도로 큰 흥미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적극적인 홍보 전략

- 사이판은 대다수의 관광객이 일본인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일본시장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예로 일본인관광객을 위한 홍보책자에는 “여기 사이판에 일본의 과거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일본인들의 향수의식을 자극하기도 하고, 반자이클리프(만세절벽)와 같이 일본어로 명명된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워 친밀감을 유도하기도 한다.
- 또한 전적지 관련 사진엽서, 기념품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이판을 찾은 관광객이 돌아간 후 주변 사람에게 구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 기타 관광상품과의 적절한 연계

- 여행사에서 실시하는 사이판의 전적지 관광상품은 약 3~4시간 정도의 코스로 40\$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주로 오전에 이루어지고 코스 프로그램에는 전적지 외에도 ‘버드아일랜드(새섬)’나 ‘아열대 식물원’, ‘천연동굴 그로토’ 등이 포함되어 역사유적지 관람만으로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관광분위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IV. 의견 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 구체적으로는 전적지상품의 개발필요성, 기대효과, 정책방향 등을 파악하고, 전적지상품 사례별 상품성 및 연계성 정도를 평가한다.

2) 조사 방법

- 조사대상지역 : 제주도 전역
- 조사대상 모집단 : 제주지역 관광사업체의 관광상품 담당자
- 조사기간 : 2001년 11월 8일 ~ 11월 16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1대1 개별면접 방법

3) 표본 추출

- 배포된 설문지 100부 중 92부를 회수하고, 이 중에서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12부를 제외한 80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확정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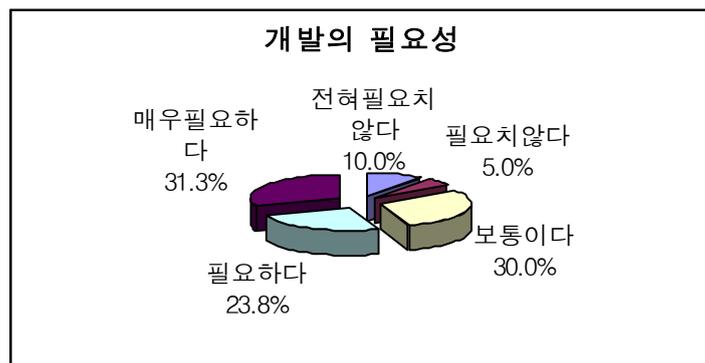
2. 인구통계적 특성

- 성별은 남성이 34명(42.5%), 여성 46명(57.5%)를 보였다.
- 연령은 20대 35명(43.8%), 30대 27명(33.8%), 40대 15명(18.8%), 50대가 3명(3.8%)를 보였다.
- 관련직 근무년수는 5년 이하가 36명(45%), 6~10년 30명(37.5%), 11~19년 12명(15%), 20년 이상이 2명(2.5%)를 보였다.
- 응답자의 직위는 대표이사, 관광상품팀장, 과장, 대리, 일반사원 등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3. 주요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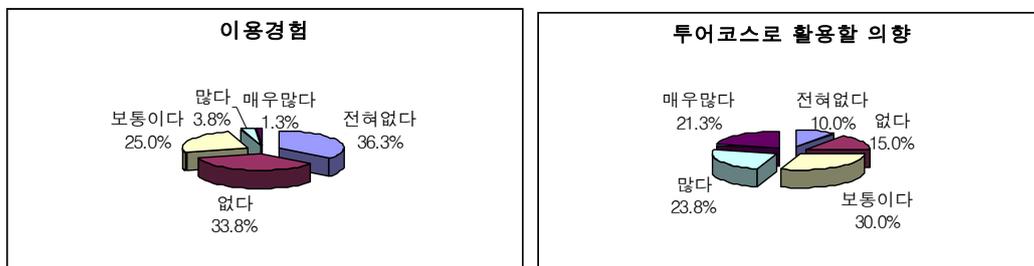
1) 관광상품으로의 개발 필요성

- 전체 응답자 80명중 '필요하다'는 의견은 44명(55.1%)이었고,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4명(3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2명(15%)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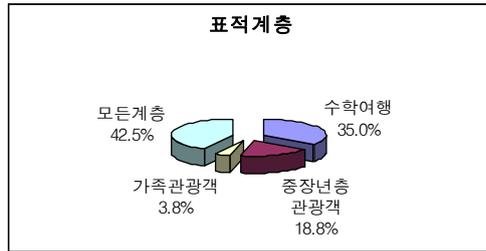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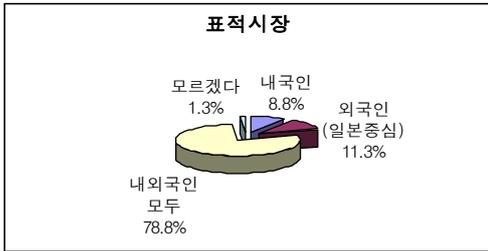
2) 관광상품으로의 이용경험 및 활용의사

- 전체 응답자 80명중 '많다'는 의견은 4명(5.1%)이었고,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0명(25%), '없다'는 의견은 56명(70.1%)로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전체 응답자 80명중 '많다'는 의견은 36명(45.1%)이었고,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4명(30%), '없다'는 의견은 20명(25%)로 향후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진다면 투어코스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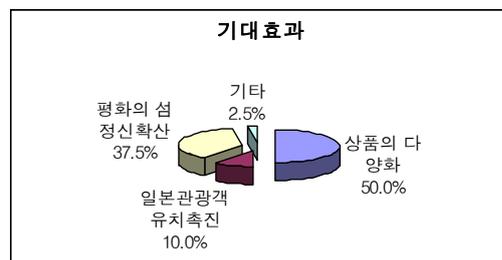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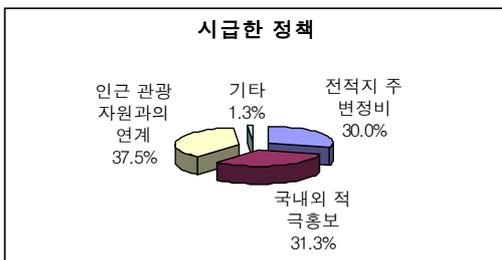
3) 표적시장 및 표적계층

- 전체 응답자 80명중 전적지 관련 관광상품의 주 표적시장이 '내국인'이라는 의견은 7명(8.8%)이었고, '외국인(일본인 중심)'이라는 의견은 9명(11.3%), '내·외국인 모두'라는 의견은 63명(78.8%)로 향후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진다면 내·외국인 모두가 표적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 표적계층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이라는 의견은 28명(35%)이었고, '중장년층 관광객'이라는 의견은 15명(18.8%), '가족관광객'이라는 의견은 3명(3.8%), '모든 계층'이라는 의견은 34명(42.5%)로 모든 계층이 표적계층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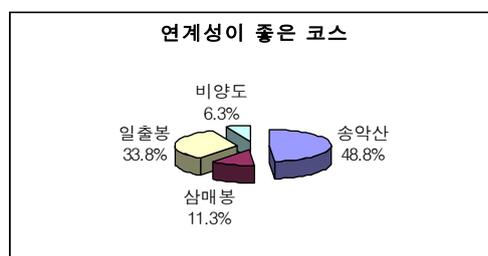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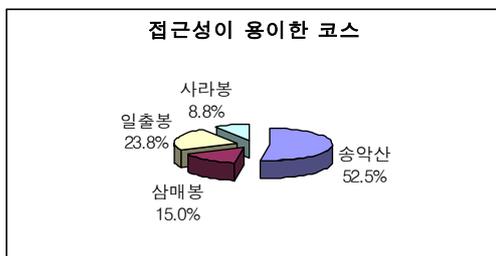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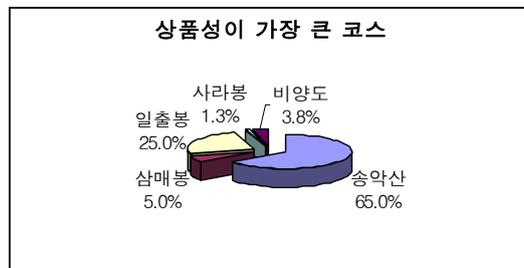
4) 상품화를 위한 정책 및 기대효과

- 일본군 전적지 상품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전적지 주변의 정비'라는 의견은 24명(30%)이었고, '국내외의 적극적 홍보'라는 의견은 25명(31.3%),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라는 의견은 30명(37.5%), '기타' 1명(1.3%)로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응답했으나, '전적지 주변의 정비'와 '국내외의 홍보' 등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 일본군 전적지 상품의 개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제주 관광상품의 다양화'라는 의견이 40명(50%)이었고, '일본인관광객 유치 촉진'이라는 의견은 8명(10%), '제주 평화의 섬 정신 확산'이라는 의견은 30명(37.5%) 등으로 '제주 관광상품의 다양화'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5) 상품성 · 접근성 · 연계성의 평가

- 5가지 코스사례별 상품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송악산 코스’가 52명 (65%)이었고, ‘삼매봉 코스’라는 의견은 4명(5%), ‘일출봉 코스’라는 의견은 20명(25%), ‘사라봉 코스’는 1명(1.3%), ‘비양도 코스’는 3명 (3.8%)로 ‘송악산 코스’가 가장 상품성이 크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접근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송악산 코스’가 42명(52.5%)이었고, ‘삼매봉 코스’라는 의견은 12명(15%), ‘일출봉 코스’라는 의견은 19명 (23.8%), ‘사라봉 코스’는 7명(8.8%)로 접근성 면에서도 ‘송악산 코스’가 가장 우수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송악산 코스’가 39명 (48.8%)이었고, ‘삼매봉 코스’라는 의견은 9명(11.3%), ‘일출봉 코스’라는 의견은 27명(33.8%), ‘비양도 코스’는 5명(6.3%)로 ‘송악산 코스’가 가장 연계성이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6) 기타 제언

- 관광자원화를 함에 있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역사성 인식과 미래지향적 사고전환의 배양이 필요하다.
- 관광상품으로의 개발과 함께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하여 상품성과 상징성을 높이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일본군 전적지의 관광상품화는 부정적인 전쟁 이미지를 평화의 이미지로 전환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일본인관광객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 일본군 전적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에 있어서는 역사현장의 보존을 통해 내·외국인관광객 중에서도 특히, 국내 청소년층에게 사실적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 아직도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에 대한 양금이 남아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역사왜곡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군 전적지 관광상품은 이를 해결하는 촉진 요소로서 개발되어야 한다.
- 일본군 전적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에 있어서는 전적지 주변의 정비,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도 중요하지만 아직 제주지역에 그러한 유물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4.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용 전망도 밝다.

- 전체 응답자의 55.1%가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45.1%가 투어코스로 활용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어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그 이용 전망도 밝다.

2) 폭넓은 관광시장과 계층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이다.

- 전적지 관련 관광상품의 주 표적시장이 '내·외국인 모두'라는 의견이 78.8%로 향후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진다면 내·외국인 모두가 표적시장이 될 수 있다.
- 표적계층에 대해서는 '수학여행'(35%), '중장년층 관광객'(18.8%), '모든 계층'(42.5%)로 나타나 수학여행과 가족단위에게는 역사교육장으로서, 중장년층에게는 과거를 회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3) 관광자원과의 연계, 홍보,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일본군 전적지 상품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전적지 주변의 정비'(30%)이었고, '국내외의 적극적 홍보'(31.3%),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37.5%) 등 고른 응답을 보여 이상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4) 제주관광상품의 다양화, 평화의 섬 이미지의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 일본군 전적지 상품의 개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제주 관광상품의 다양화'(50%), '제주 평화의 섬 정신 확산'(37.5%)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외에도 '일본인관광객의 유치', '제주 관광상품의 다양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관광상품으로의 개발 우선순위가 명확히 드러났다.

- 상품성, 접근성, 연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결과 '송악산 코스'가 가장 이상적인 전적지 상품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일출봉 코스', '삼매봉 코스'의 순이었다.
- 따라서 제주도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 '송악산 코스'를 선도지역으로서 개발하고, 점차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크다.

6) 경제적 관점과 더불어 역사교육적 관점도 중시되어야 한다.

- 전적지 관광상품은 내·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경제적 관점과 더불어 내국인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경험하고, 외국인(일본인 중심)에게는 빛나간 역사를 반성하게 하므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역사교육적 관점도 중시되어야 한다.

V. 역사교육장화 방안 제안

1. 기본 방향

1) 미래지향적 사고로의 접근

-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는 내국인과 일본인관광객 모두에게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시간을 갖게 하고, 미래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즉, 일본과의 역사적 앙금을 간직한 채로 제주가 가진 우수한 역사적 자원을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 적극적인 보존 및 복원

-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는 해외사례(사이판)와 비교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원형을 복구하거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아가 소극적인 원형보존에 그치지 말고 대포와 어뢰정 등 소실된 과거 전적유물들은 모형으로라도 복원·전시하여 전적지의 상징성과 상품성을 극대화한다.

3) 창조적 연출미의 가미

-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는 소수의 연구자만이 아니라 내·외국인 모두에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즉,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므로써 묻혀가는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제공한다.
- 따라서 역사교육장으로서의 가치와 관광상품으로서의 상품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래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창조적 연출미가 필요하다. 즉,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이를 스토리화하므로써 쉽게 이해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게 한다.

2. 세부 방안

1) 전적지 투어프로그램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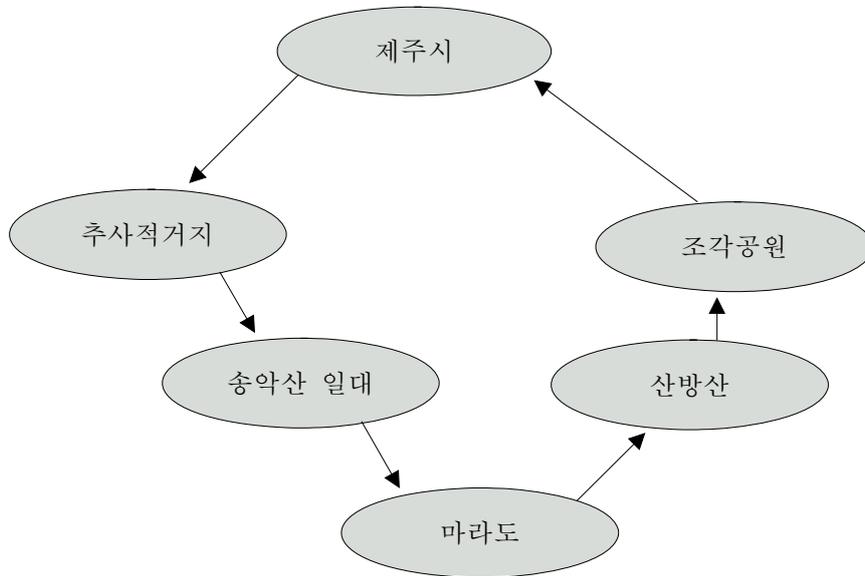
(1) 투어코스의 개발(예)

- 본 연구에서는 도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일본군 전적지 중 1차 분석을 통하여 '송악산 코스', '일출봉 코스', '삼매봉 코스', '비양도 코스', '사라봉 코스'의 5가지를 사례로 2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악산 코스'와 '일출봉 코스', '삼매봉 코스' 등이 상품성 및 연계성 등에서 보다 타당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투어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수요가 커지게 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송악산 코스(예) : 1일형

	루트	접근소요시간	관광소요시간
송악산 코스	제주시	-	-
	추사적거지(백조일손지묘)	40분	30분
	송악산(알드르비행장)	10분	1시간 10분
	마라도	30분	1시간 30분
	산방산(하멜기념비)	10분	30분
	조각공원	10분	1시간
	제주시	40분	-

- 제주시에서 출발하여 추사적거지, 송악산, 마라도, 산방산, 조각공원을 돌아 제주시로 돌아오는 투어코스이다.
- 이 투어코스는 제주시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점심시간 등을 포함하여 총 8시간이 소요되어 오후 5시경에 제주시로 돌아오게 되는 1일형 코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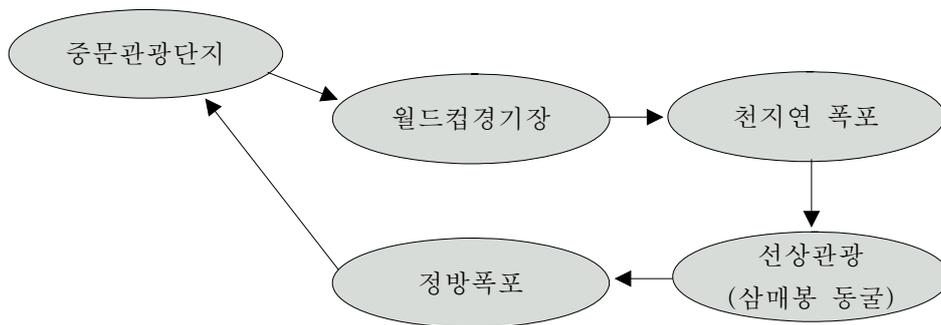


- 투어코스는 여행상황에 따라 주변 관광지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추사적거지 대신에 '백조일손지묘'나 '대정향교', 산방산 대신에 '하멜기념비'나 '용머리해안' 등을 코스에 넣을 수 있다.

□ 삼매봉 코스(예) : 반일형

	루트	접근소요시간	관광소요시간
삼매봉 코스	중문관광단지	-	-
	월드컵 경기장	15분	30분
	천지연 폭포	10분	30분
	선상관광(삼매봉 동굴)	10분	1시간
	정방폭포	10분	30분
	중문관광단지	15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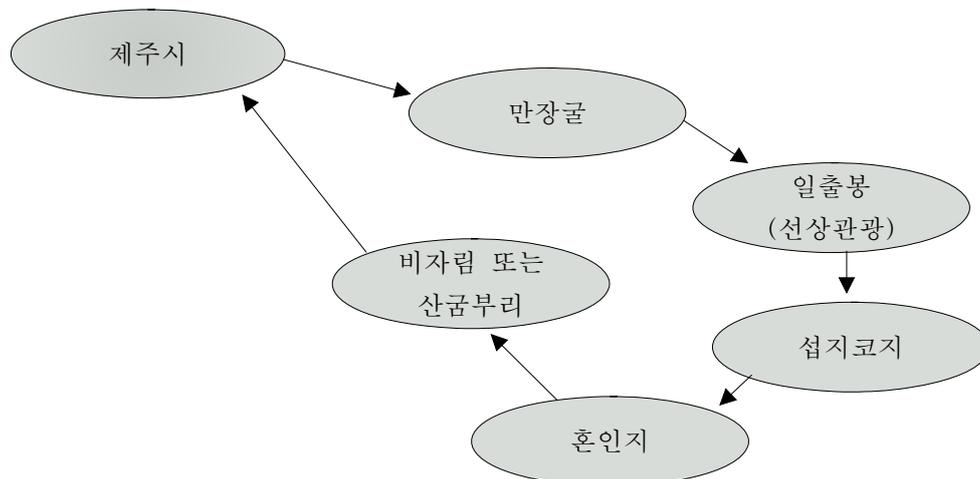
- 중문관광단지에서 출발하여 월드컵 경기장, 천지연 폭포, 선상관광(삼매봉 진지동굴), 정방폭포를 거쳐 중문관광단지로 돌아오는 투어 코스이다.
- 이 투어코스는 중문관광단지 오전 9시에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3시간 30분이 소요되어 오후 12시 30분경에 중문관광단지로 돌아와 식사를 하거나 서귀포 시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반일형 코스이다.



□ 일출봉 코스(예) : 1일형

	루트	접근소요시간	관광소요시간
송악산 코스	제주시	-	-
	만장굴(김녕사굴)	30분	40분
	일출봉(선상관광)	25분	1시간 10분
	섬지코지	10분	30분
	혼인지	10분	30분
	비자림(산굼부리)	20분	1시간
	제주시내 관광(목석원 등)	-	2시간

- 제주시에서 출발하여 만장굴, 일출봉, 섬지코지, 혼인지, 비자림(산굼부리)를 거쳐 제주시내로 돌아와 시내 관광지를 보는 투어코스이다.
- 이 투어코스는 제주시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점심 시간 등을 포함하여 총 9시간이 소요되어 오후 6시경에 제주시로 돌아오게 되는 1일형 코스이다.



- 투어코스는 여행상황에 따라 주변 관광지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장굴 대신에 '북촌리 체험어장', 십지코지 대신에 '철새도래지'나 '종달리 맛조개 체험어장' 등을 코스에 넣을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 이상의 투어코스는 우선은 탐방형 프로그램이 될 수 밖에 없지만 향후 붕괴위험 및 훼손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적 조사가 완료되면 위험이 적은 진지동굴들에 대해서는 내부에도 직접 들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
- 한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들을 시행한다.
 - 송악산의 경우는 양호하나 삼매봉과 일출봉의 경우에는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는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난간이 있는 형태의 접근로를 마련한다.
 - 어뢰정 상륙시설 옆에는 어뢰정 모형을 복원, 전시하거나 동굴 입구에 일본군 및 강제노동하는 제주인의 모형 등을 전시한다.
 - 전적지 별로 건설경위와 규모, 제주인의 수탈역사 등을 설명해 주는 안내문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이해를 돕는다.
 - 전적지 지도를 제작하여 개별관광객 및 가족관광객이 전문안내인의 동행없이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한다.

2) 전적지 박물관의 건립

□ 필요성

- 제주지역의 일본군 전적지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으나 접근로가 마련되지 않아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전적지 관련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일공간이 필요하다.
- 과거 식민지시대와 관련한 제주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 기능

- 잊혀져가는 식민지시대의 제주역사 자료 및 유물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이다. 그 외에도 당시의 대포나 어뢰정 등 소실된 유물들도 복원하여 전시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 내·외국인이 과거 역사를 느끼고 배우는 역사교육장으로서의 기능과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 입지선정

- 지리적 접근성과 전적지 시설의 분포정도, 부지규모,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대정읍 상모리 '알드르비행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입시설

- 자료 및 유물전시관
 - 전적지 건설과 관련해 강제동원된 수탈사 등을 보여주는 과거의 역사자료 및 관련 유물들을 전시한다.
- 영상체험관
 - 강제노동을 통한 건설 장면, 일본군의 군사활동 등을 3차원 그래픽 등으로 복원하여 상영하므로써 생생한 과거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 학습관
 - 내국인 청소년 혹은 한일 청소년들이 과거 역사에 대해 토론하고 학습하는 공간이자, 소규모의 평화 관련 세미나,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 야외 전시장
 - 어뢰정 혹은 비행기, 대포, 일본군 병사 모형, 강제노동하는 제주인의 모형, 진지동굴 모형 등 규모가 큰 전적유물들을 전시한다.
- 기념비 또는 추모비
 - 기념비나 추모비를 세워 과거에 희생된 제주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킨다.
- 기타 편의시설 등
 - 화장실, 벤치, 음료수대 등의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단순 박물관이 아닌 종합휴양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한다.

3) 적극적인 원형보존과 소규모 공원화

- 사이판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적지 관련 유물은 다소 파괴되었더라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전시하므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보다 생생한 역사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 해녀의 탈의실, 농작물 저장고 등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시급히 마련하여 더 이상의 물리적, 상징적 훼손을 방지하고, 소실된 유물(대포, 어뢰정 등)들은 원형대로 복원하여 전적지임을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반자이클리프(만세절벽)’, ‘자살절벽’, ‘일본군 최후의 사령부’ 등 사이판의 일본군 전적지와 같이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이자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 경우 자연스레 상품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4) 창조적 연출미의 가미

-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에 얽힌 이야기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스토리화는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시켜 관광동기로서 작용하고, 기억에 남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전적지 주변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모금한 후 UNISEF 아동보호기금이나 평화 관련 기금, 한일 역사세우기 운동기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도 전적지의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시키면서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이 된다.

5) 적극적인 홍보전략 모색

- 일본인관광객을 대상으로는 먼저 과거 역사에 향수를 가지는 중·장년층을 집중 공략하고, 점차 청소년층으로 확대한다.
 - 도·시·군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지역의 중·장년층과 청소년 등을 초청하여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초기의 낮은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
-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는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하여 역사적 동질성이 있음을 부각시키고, 양국이 함께 반성하고 의논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 한국과 중국의 중·장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국의 일본군 전적지를 상호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한중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양국간의 관광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 내국인 가족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략의 컨셉은 제주관광은 단순주유형이 아니라 과거 역사체험과 자녀들의 교육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 가족관광객과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전통적 홍보방법 이외에도 인터넷 광고 등을 실시하여 인지도를 높인다.
 -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면서 전적지 관련 안내책자를 동봉하고, 대상 학교별로도 안내책자를 발송한다.
- 기타 전적지 관련 사진엽서, 전적지 지도, 기념품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돌아간 후 주변 사람에게 구전될 수 있는 홍보방법으로 활용한다.

6)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 앞서 투어프로그램에서 제시했듯이 전적지 관련 투어는 주변 관광자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하여 역사유적지 관람만으로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관광분위기를 방지하고, 다목적 관광을 요구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를 도모한다.
- 송악산코스의 경우 최남단 마라도관광을 연계시키고, 삼매봉코스의 경우 서귀포 앞바다 선상관광 및 님시·스킨스쿠버관광, 일출봉 코스는 일출봉 선상관광과 섭지코지 님시관광 등을 연계시켜 해양 및 역사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

< 참고문헌 >

제주도·제주예총, 「광복 50주년, 오늘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들」, 1995.

공군 제8546부대, 「이런디 알았수과(제주도 전사적지 탐방기)」, 1996.

<http://www.visit-marianas.co.kr>

<http://www.aq.co.kr>

부록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 발전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표는 당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관련 여행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일본군 전적지 관련 진지동굴 및 관련 시설 등의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관광상품화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은 본 연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며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술적인 통계분석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본 조사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번거로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바라오며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에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조사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재) 제주발전연구원 신동일 연구원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문성종 교수

TEL) 064) 751-5166~7, FAX) 064) 751-2168

※ 본 조사에서 언급되는 일본군 전적지는 진지동굴, 참호, 탄약고, 비행장 시설 등 과거 일본군이 조성한 태평양전쟁 관련 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관광상품화 방안 사항

1. 현재 제주도의 관광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 귀사는 제주에 산재해 있는 일본군 전적지들을 제주관광에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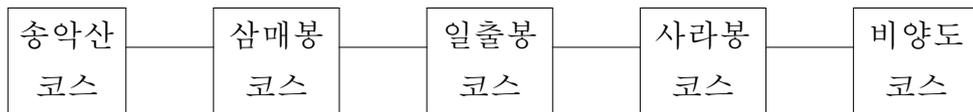
3. 향후 일본군 전적지의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진다면 귀사는 투어코스로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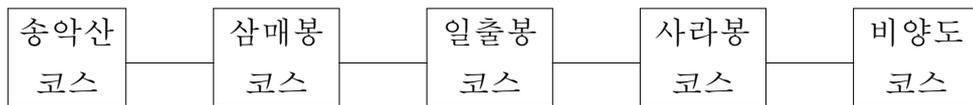
※ 본 연구진은 1차 조사를 통하여 상품성 및 접근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산재해 있는 일본군 전적지 중에서도 다음의 5가지 코스를 선정하였습니다.

- ① 송악산 코스 - 진지동굴, 알뜨르비행장, 탄약고 등
- ② 삼매봉 코스 - 진지동굴, 상륙정 상륙시설 등
- ③ 일출봉 코스 - 진지동굴(80여개) 등
- ④ 사라봉 코스 - 진지동굴 등
- ④ 비양도 코스 - 일본군함 침몰지, 진지동굴(고산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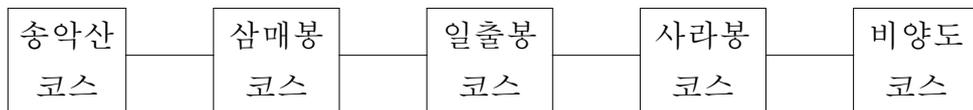
8. 보기의 투어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상품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코스는 어디입니까?



9. 보기의 투어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여겨지는 코스는 어디입니까?



10.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코스는 어디입니까?



연구진

· 연구책임	신 동 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 공동연구	문 성 중	제주한라대학 관광경영과 교수
	정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

인 쇄 일 2001. 11
발 행 일 2001. 11
발 행 인 고 충 석(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으 뜸 출 판 문 화 사 (☎ 724~4818)

ISBN 89-88021-18-5 933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出處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